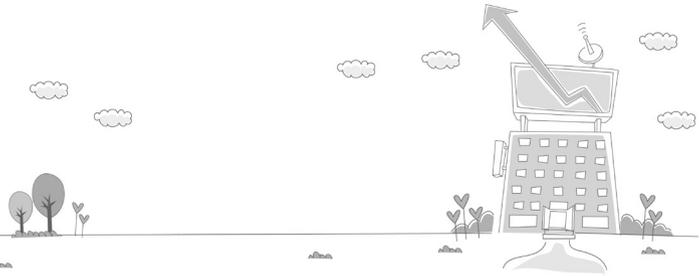


기관소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발전방안,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농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보완·발전방안 수립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 워크숍 개요 : '14.3.20(목)~3.21(금) / KREI 관측상황실(대전시 유성구 소재)

농산물 유통분야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한 다양한 정책고객이 있고, 정책의 영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현실감 있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개최 배경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농산물 유통분야의 학계·연구기관 및 도매시장·산지유통조직 전문가 등 현장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13년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직거래 등 신(新)유통·도매시장·수급안정 및 생산자단체 계열화 등 주요 분야별 보완·발전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검토하여 오는 4월말

로 예정되어 있는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방안」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유통구조개선대책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HPAI, FMD 등 국가재난형
동물·식물 질병 유입방지를 위한
한·중(韓·中) 국경검역 협력 MOU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3월 24일 서울(외교부)에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부국장 메이커바우(梅克保), 차관급]과 한·중간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여행자 수하물 및 우편물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 2001년 설립된 국무원 직속 기구로 본부와 전국 66개 성(省)급 지역본부로 구성, 정원은 총 21만여 명이며 주요 임무는 동물·식물 국경검역, 위생 및 국가품질기술감독 등임)

이번 MOU 체결은 최근 국내에 발생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AI 및 소나무재선충 외 2000년대 이후 우

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동물·식물 질병의 재발 방지 및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간 동물·식물 질병 발생정보 교류 확대 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경에서의 불법 동물·식물 검역대상물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미 효율성이 검증된 검역탐지견 제도의 상호 발전을 위해 탐지견 육성 및 훈련·평가기법 교류, 탐지 경진 대회 개최 및 우수탐지견 유전자 교환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검역탐지견** : 사람에 비해 수만배 이상 발달한 우수한 후각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반입하는 농·축산물을 찾아내는 고도로 훈련된 개를 말하며, 검역본부에서는 33마리를 보유 중임. 중국은 2002년 동제도 도입 후 60개 공항만에서 193두를 운영 중임)

※ **검역탐지견 축산물 검출 비율(축산물 기준)** : 전체 불법 건수의 47% 수준

참고로 중국은 HPAI·구제역 등 주요 동물·식물 질병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에는 신종 질병인 H7N9형 HPAI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검역 대상국 중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

※ **총 휴대축산물 검역 실적 대비 중국산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현황**

• ('10년) 46,198건 중 31,178건(67.5%) → ('13년) 48,682건 중 30,279건(62.2%)

검역본부는 이번 MOU 체결이 HPAI 조기 근절 및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검역 대상국 중 가장 중요한 중국과 상호 실질적 정보 및 기술 교류의 첫발을 내딛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간 궁극적 목표인 재난형 질병 근절을 위한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중국 검역당국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다 신속·정확한 중요 질병 발생 동향 등 파악 및 대응을, 중국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검역탐지견 제도 도입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

출국여행객 대상 동·식물 검역 안내센터 최초 개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에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장에서 동·식물 검역 안내센터를 최초로 개설·운영하여 양방향 소통을 통한 맞춤형 검역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설되는 동·식물검역 안내센터는 아시아지역 출국 노선 집중시간대(평일 08:00~20:00, 주말 08:00~18:00)에 검역관을 상시 배치하여 해외여행객들에게 해외 동·식물전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검역상담은 물론 휴대검역물 반입시 신고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법 휴대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

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13년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447만 명으로 '08년 276만명 보다 62% 증가 (휴대축산물 검색실적은 3,099건으로 '12년 2,758건 보다 11% 증가)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고, 여행객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AI·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에게는 출국시 신고사항을 안내하고,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금지 등 주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식물검역 안내센터를 통하여 해외여행객에게 맞춤형 검역 정보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행객과 소통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식물 검역 안내센터의 개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실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I 예방 홍보 영상물 배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홍보 동영상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를 막읍시다'를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 배부되는 동영상은 △계분·노계도태·계란운반 등 차량의 내·외부 소독방법 및 장비 관

리 △백신접종팀, 인공수정사, 우편배달 등 방문자 의복·신발 소독 등 가금류 사육농가가 AI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차단방역 활동들을 담아 제작했다. 위생방역본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하여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 제작했다"며 "농가들의 자율방역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AI 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생방역본부는 이번 동영상을 가축방역 유관기관 및 생산자 단체, 시·도, 시·군·구 등에 배부하고, 홈페이지(<http://www.lhca.or.kr>)에 게재해 가축방역 예방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축산과 농촌지도 본격지원 세네갈 다카에서 축산분야와 농촌지도 기획회의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아프리카 14개국에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KAFACI)의 축산 연구개발 기획회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농촌지도 기획회의를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세네갈 다카에서 세네갈 농업연구청(ISRA)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 KAFACI 참여국(아프리카) : 카메룬, DR콩고,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코모로, 앙골라, 가봉, 가나 (진한 글씨가 이번 회의 참가국)

KAFACI는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전수하는 협의체로 2010년 7월 발족해 지난 3년 동안 연구협력 및 농촌지도 사업을 수행해왔다. 아프리카 17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우간다에서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 식량작물, 농업기초과학, 원예, 농촌지도 등 5개 분야로 나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의 대표적인 농촌지도기관 및 축산 연구기관장 또는 기획부장 등이 참석해 각 국가의 농촌지도와 축산 정책, 현안 사항을 공유한 후 각 분야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프로그램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한 국가와 협력하는 양자협력 방식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다자간 협력 방식이다.

아프리카 KAFACI 회원국들은 이번에 결성된 'KAFACI 농촌지도 기관 네트워크'와 'KAFACI 축산연구개발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국 간 농촌지도 및 농업연구개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뿐 아니라 농업기술협력 사업의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참여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홍성구 원장은 "아프리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 선진국이 제공하는 농업·농촌개발 공적개발원조가 지속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대륙으로 남아 있다."라며 "국립축산과학원은 그동안 한국의 축산경제 발전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아프리카에 접목해 축산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이범승 국장은 "서구 선진국이 제공했던 공적개발원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 농업환경의 특징과 지역적 특

수성에 적합한 농촌지도 체계의 재정비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농촌지도 프로그램을 소개해 아프리카 회원국의 기술지도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국민 식품·의약품
안전 기술수요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에 관한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 보급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국민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식품·의약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 보급하고자 마련됐으며, 식품·의약품 관련 산업체, 학계, 검사기관 등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분야는 현장에서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전반에 관한 기술 등이며, 총 17명 우수제안자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은 오는 2015년 연구개발(R&D) 신규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식품·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기술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기적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양한 국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연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개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규담, 이하 인증원)은 최근 AI 발생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음식업소의 사기진작을 위해 3월 5일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시식회에는 조규담 원장을 비롯한 본원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닭·오리고기 등의 요리를 시식하였다. 인증원 관계자는 ‘닭·오리고기 시식회’를 본원뿐만 아니라 각 지원에서도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금류 소비촉진 및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담 원장은 “AI로 인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음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며, “가금류는 75도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한국관광협회중앙회 MOU 체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 회장 남상만)는 3월 18일 오후 aT센터에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음식 및 식품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통음식을 홍보하는 전국 맛지도 제작 등을 추진함으로써 음식관광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특색있는 우리 음식에 대해 중국 등 방한 외래 관광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음식과 문화를 연계한 K-FOOD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잠재력이 큰 음식관광을 6차산업 핵심 성장엔진 동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코레일과의 협약체결에 이은 두 번째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으로, aT는 앞으로도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음식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aT 김재수 사장은 “관광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음식과 문화를 연계한 전통음식 판로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음식관광 활성화와 국민 행복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식품전문가 풀 제도 도입으로 식품 안전 강화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법령해석, 식품기술 정보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풀

(pool)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생태계 (Food Safety Ecosystem)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전국에 있는 5개 권역별 안전센터의 잔류농약·식중독균 검사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생태계는 농식품 유통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공급과정별 위해성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시스템이다. 단계별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및 원산지검정 ▲가공식품 및 판매장 위생관리 ▲농협 하나로마트 협력업체 제품 위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농협은 3월 4일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서 「식품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무사고를 구현하기 위한 식품안전생태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인증 추진 ▲모바일 식품안전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추진 ▲경제사업장 현장컨설팅 강화 방안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여러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안심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안전관리시스템의 세밀한 구축이 필요하다”며 “농협식품안전연구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

축산인 사회공헌 ‘나눔축산운동’ 활발
출범 1년만에 회원 7000명·후원금
3억원 늘어나



3월 11일 나눔축산운동본부의 2014년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엄승섭 도드람양돈농협 상임이사(가운데)가 운동본부 측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증하고 있다. 왼쪽은 이창호, 오른쪽은 남성우 공동대표.

나눔축산운동에 참여하는 회원수와 후원금이 크게 늘어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나눔축산운동본부(공동대표 남성우·이창호)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후원회원수가 1만1558명으로, 1년 만에 무려 6944명이나 증가했다. 또 이들의 후원금도 2012년 말 8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억8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올해 명실상부한 범축산인 사회공헌체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 아래 축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외계층 대상 축산물 정나눔 행사,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 후원, 나눔축산 1사1하천 사랑운동, 축산식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심포지엄, 축산물 생산자·소비자 상생의 길 걷기대회 등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3월 11일 서울 중구 농협 중앙본부에서 2014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운동본부는 이병엽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조합장과 김윤기 지에치코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2014. 03. 14